

- 주요 뉴스: 미국 5월 근원 PCE 물가 상승세 둔화 소비자표 부진으로 경기침체 우려는 확대
 - ECB 은행감독위원장, 역내 은행에 경기후퇴를 가정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권고
 - 중국 6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,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인 50 상회
 - OPEC+, 8월 증산 규모는 현행 수준 유지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0.9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하락[-8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예상치 하회한 5월 개인소비지출 등이 투자심리 저해
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약세 및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1.5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이 원인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0.6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된다는 시각 등이 반영
독일은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18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87.6원, -10.8원) 0.8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6/30일	6/29일	전일대비			6/30일	6/2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785.4	3,818.8	-0.88%	국채 금리 10y	미국	3.01%	3.09%	-8bp
	유럽	407.20	413.42	-1.50%		독일	1.34%	1.52%	-18bp
	중국	3,398.6	3,361.5	1.10%	CDS 5y	한국	54bp	50bp	4bp
	일본	26,393	26,805	-1.54%		중국	86bp	82bp	4bp
	한국	2,332.6	2,378.0	-1.91%	위험 지표	EMBI+	-	458	-
환율	달러지수	104.70	105.11	-0.38%		VIX	28.71	28.16	1.95%
	유로화	1.0484	1.0442	0.40%		WTI유	105.76	109.78	-3.66%
	엔화	135.72	136.59	0.64%	원자재	구리	371.5	377.9	-1.71%
	위안화	6.6993	6.7009	0.02%		금	1,807.3	1,817.7	-0.58%
	원화	1,298.4	1,299.0	0.0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5월 근원 PCE 물가, 상승세 둔화. 소비지표 부진으로 경기침체 우려는 확대

- 5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보합(6.3%→6.3%)인 반면 전월비 상승률은 높아진(0.2%→0.6%) 것으로 확인. 근원 PCE 물가의 경우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하락(4.9%→4.7%)했고, 전월비 상승률은 보합(0.3%→0.3%)
-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, 근원 PCE 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.3%를 기록하며 보합을 나타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
- 5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비 증가율이 0.2%로 5개월 만에 최저. 이번 결과는 고물가와 금리상승 등의 영향 때문. 한편 미국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비의 부진으로 2/4분기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
- Stifel Financial의 Lindsey Piegza는 소비지출의 증가세 둔화는 단기 경기하강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약화시킨다고 언급. Raymond James의 Tavis McCourt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대규모로 축적된 저축이 그 동안의 양호한 소비를 뒷받침했는데, 이러한 현상도 9월 초가 되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
- 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는 이날 발표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제어 성공을 나타내지는 않지만, 경제활동 둔화 징후는 연준에게 고무적 결과라고 판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6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소폭 감소했으나 노동수요 약화는 지속

- 해당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했지만 23.1만건을 나타내 4주 연속 23만건 상회. 시장에서는 금리인상과 기업들의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노동시장 내 수요가 점차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

■ JPMorgan, 미국은 향후 경기 연착륙이 아닌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

- JPMorgan 자산운용의 Bob Michele는 경제 전망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발언.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정책금리 상승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, 경제 시스템 내의 유동성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

■ ECB 은행감독위원장, 역내 은행에 경기후퇴를 가정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권고

- 엔리아 위원장은 배당 지급 등도 해당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. 또한 은행들은 자본 계획을 마련할 경우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등 매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

■ 스웨덴 중앙은행, 0.5%p 금리인상 결정.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목적

- 이번 조치로 정책금리는 0.75%로 상향. 성명서에서는 향후 경제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을 조정할 할 것이고 발표. 한편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, 정책금리가 내년 초에는 2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6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,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의 기준인 50 상회

-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제조업 PMI는 50.2로 전월(49.6) 대비 상승. 세부항목 가운데 생산 및 신규수주는 양호했으나 재고와 고용은 부진. 서비스업 PMI도 54.7로 13개월래 최고치. 세부항목에서는 신규수주가 수요 회복 등으로 호조
- 전문가들은 주요 도시의 경제 봉쇄 완화 등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동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. Pinpoint 자산운용의 Zhang Zhiwei는 이동 제한 완화 등으로 7월에도 경제활동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
■ OPEC+, 8월 증산 규모는 현행 수준 유지할 방침

- 7월과 마찬가지로 8월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일일 64.8만배럴 증산을 지속할 계획. 일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의 주요 산유국에서 인위적으로 대규모 증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가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다고 주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6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시카고 제조업 PMI: 56, 5월(60.3), 예상치(58)
- 미국 5월 개인소득(전월비): 0.5%, 4월(0.5%), 예상치(0.5%)
- 유로존 5월 실업률: 6.6%, 4월(6.7%), 예상치(6.8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7/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ISM 제조업 경기지수,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,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 금융시장과 경제지표, 값비싼 인플레이션 탈피 가능성을 시사 - 블룸버그**
(Markets Are Signaling a Pyrrhic Inflation Victory)
 - 미국 1/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(전기비연율 -1.6%)를 나타냈고, 채권시장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물가연동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발신. 이는 인플레이션의 방향 전환을 예고
 - 점진적으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의 기본 시나리오가 되고 있으며, 이에 선물시장도 점차 연준의 통화긴축이 완화될 수 있음을 제시.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로 점차 둔화될 가능성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의미
- **미국의 효과적인 고물가 해결, 긴축재정보다 성장촉진을 통한 공급확대가 요구 - WSI**
(Economic Growth, Not Austerity, Is the Answer to Inflation)
 - 고물가 해결에 긴축적인 재정정책은 생산감소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물가하락 효과는 기대난. 아울러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. 이에 반해 친성장 정책의 경우 생산 및 고용의 동시 증가를 유도
 -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시행된 세금감면 정책은 당초 재정적자 및 고물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듬해 GDP는 8%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. 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고물가 통제 시 규제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
- **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초, 소비자물가 둔화 신호에도 지속될 가능성 - WSI**
(The Fed Is Still Feeling the Inflation Heat)
- **미국 중소기업, 판매감소 전망 등으로 12개월 내 경기침체 예상 - 블룸버그**
(Small Businesses Are Flashing a Recession Warning Signal)
- **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, 정부 지원 미비로 지연될 우려 - Financial Times**
(US still lagging in delivering on chip ambition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